

# 학교 옥외 공간 환경

## Outdoor Space of Schools

육 옥 수\*

Yook, Ok-Soo

### 1. 학교 외부 공간의 역할

이번 호 특집의 주제는 '학교 외부 공간'이다. 학교가 교실이나 옥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외에 야외학습이나 놀이 등을 통한 인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생태 환경이나 새로운 옥외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교내 학생들의 실습과 체력 활동은 물론 이로 인한 학교 외부와의 교류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행해지는 곳이 학교의 외부공간이다. 더욱이 이 공간들은 교사와 외부 사이에 위치하여 그 양쪽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며 향후 새로운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이다.

학교의 외부공간이라 하면 교지 내의 학교 건물들을 제외한 모든 유무형 요소들을 말하며 심지어 공간의 외적 측면에서 볼 때 학교 앞 진입로와 진입부분은 물론 대지가 외부와 접하는 학교 주변까지를 생각할 수 있다. 등교 시 학교를 향하며 거치게 되는 학교 거리뿐만 아니라 교정을 지나 교실까지 가는 길 역시 외부공간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별 활동을 위해 지금의 교실에서 다른 동으로 가는 과정공간도 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억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외부 공간은 사용자의 의도와 위치에 따라 연속적으로, 동시에, 중복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이는 교사들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별도의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다목적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과정을 느끼게 한다. 외부공간이 주로 무형의 장소가 많아 유형의 형태 계획 다음의 후행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외부 공간 역시 무형시설의 범주에 넣어 공간 계획에서 선행되어야 할 때이다.

### 2. 단절보다는 소통으로

유럽 대도시의 학교들은 정문과 교사동 일체의 도시형으로 도로면에 맞추어 정렬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 하교 시 학부모들은 단힌 교문 앞에 삼삼오오 모여 자녀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교문을 열고 나온 교사들은 부모에게 학생들을 인계하고 다시 학교로 들어간다. 우리에게 생소한 풍경이다. 기능에는 확실한 만큼 내외부와의 경계가 단절적이다. 운동장의 경우 도심지보다는 도시 변두리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역시 교사동 옆에 위치하여 기능적인 배치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의 옥외 활동은 그 목적과 정해진 곳에 따라 도시의 체육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에 가서 운동하고 견학하고 감상한다. 도시가 기능적으로 학교의 옥외활동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의 학교들은 교문을 앞세우고 운동장을 거친 후에 교실에 당도하는 통과적 배치가 대부분이다. 서양의 on-off 식 폐쇄형 진출입과는 달리 우리의 것에는 절차와 과정이 동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의 외부공간은 학교 밖의 관심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학교를 외부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일부 학교들은 막힌 것을 트고(학교 담) 있는 것을 없애고(교문) 새로운 것을 집어넣기도(생태학습, 생태 숲) 한다. 이제는 각 요소가 서로 소통하려고 한다. 운동장의 경우 단일의 기능으로 정한 장소가 아니기에 누구나 사용하며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 채워진 형태보다도 비어 있는 무형의 시설로 인해 그 쓰임이 다양하며 정하지 않은 데서 오는 자유로움이 있다.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이 생긴다. 하나의 기능이 끝나면 모든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닌 연속적이고 동시적인 행위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운동장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공간 역시 하나의 기능

\* 정회원, 서울예술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

만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치를 만족하는 공간이 되어 서로가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기능과 형태에서 기억의 장소로

우리가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등학교 시의 교문이나 학교주위의 울타리나 담, 운동장과 교실이 모여 있는 교사 등을 쉽게 떠올릴 것이다. 그중에서도 교실과 학교 건물은 형태적 인식이 강하다. 기능에 대한 발전은 쓰임새를 편하게 하여 좋지만, 기억에 쌓이지는 않는다. 과거의 기억으로 보아도 교실에서 공부한 기억보다는 운동장이나 복도, 교실 뒤 숲이나 교문 앞 주변에서 일어났던 기억들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 서울의 초등학교 중에 다섯 곳에 운동장이 없다고 한다. 학교의 교사 형태와 배치의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외부공간을 고려한다면 운동장은 쉬운 없앴보다는 어려운 남김으로 택해져야 할 것이다.

학교 계획의 대상을 교사동과 건물의 기능과 형태 우선으로 본다면 그것들을 제외한 외부공간은 형태를 도와주는 배경으로 작용함이 바람직하다. 배경은 형태의 주위에 위치하여 형태 간의 관계를 강조하기도 하고 외부와의 인식을 도와준다. 심지어 배경 그 자체가 강조될 때는 그것은 자연으로 승화되어(생태학습, 생태 숲) 어떤 경우보다도 사용자의 사용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외부공간은 특정한 형태나 기능의 또 다른 요소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와 내부, 내부와 내부를 잇는 관계로 보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기억을 쌓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집을 위한 집필은 주로 학교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학회, 교육청과 건축가 등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집필진의 현장 경험에서 오는 체험의 말씀들이 향후 사용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외부 공간 설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